

스스로 들어가며
오십의 공허, 논어로 채우다

- 죽도록 일해도 빛 없는 인생이기가 쉽지 않았기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
- 숨 막히게 달려왔던 경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 子曰 人無遠慮 必有近憂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1강. 공허한 오십에 공자가 하는 말 공허

●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 지 /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돼 주오 /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 주오 /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는 /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돼 주오 / 나에게 주어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 주오 / 가려워진 나의 길

가수 유재하

● 오십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사십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子曰 年四十而見惡焉 其終也已

● 돈으로는 반박에 해결하지 못한다

섭공이 정치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먼 곳의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葉公問政 子曰 近者說 遠者來

- 財貨萬事成이 아니라 家和萬事成입니다. 財貨半事成입니다

● 오십에 극복해야 할 제일의 위기

색과 냄새가 좋지 않거나 익히지 않은 건 먹지 않았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았다.

色惡不食 臭惡不食 失飪不食 不時不食

● 효는 일상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

맹무백이 효에 관하여 여쭙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그것만을 걱정한다.”

孟武伯問孝 子曰 父母唯其疾之憂

●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子曰 無欲速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 모두가 똑같은 곳에 도달할 순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배울 수는 있지만 모두 도를 행하는 데로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있어도 모두 설 수는 없으면, 함께 설 수는 있어도 모두 권도를 행할 수는 없다.“

子曰 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

- 세상의 삶이 모두 다르지만 우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공자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몰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하느냐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 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걷는다

공자께서 증삼에게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고 하자 증자가 ”네“라고 답하였다.

공자가 나가자 문인들이 물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까?“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 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子曰 苗而不秀者有矣夫 秀而不實者有矣夫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져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나부터 바로 서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자공이 군자에 관하여 여쭙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행하고 그다음에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子貢問君子 子曰 先行其言 以後從之

2강.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법 성찰

● 오십에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子曰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 내 삶의 리더가 되는 세 가지 방법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아니하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子曰 學而時習之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

● 어찌해야 할까, 심사숙고하는 힘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이미 어찌할 수가 없다.“

子曰 不曰如之何如之何者 吳末如之何也已矣

●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삶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가 고가 아니면 고이겠는가, 고이겠는가.“

子曰 觚不觚 觚哉 觚哉

● 소명을 알고 예를 알고 말을 안다는 것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산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법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할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子曰 由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 오십에 들이닥칠 근심이 고마운 이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을 닦지 못한 것, 학문을 강구하지 못한 것, 의를 듣고 실천하지 못한 것, 불선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子曰 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

● 사익을 따를 것인가, 공리를 따를 것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

子曰 放於利而行 多怨

3강. 흔들리는 오십을 다잡아 주는 힘 균형

● 꾸밈과 바탕이 모두 좋아야 명품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꾸밈과 바탕이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子曰 文質彬彬 然後君子

●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군을 통솔하는 장수는 빼앗을 수 있으나,
필부에게서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다.”

子曰 三軍可奪帥也 匹夫不可奪志也

●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子曰 過而不改 是謂過矣

● 단 하나의 덕이라도 있으면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

子曰 德不孤 必有隣

●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건 뒤로 하라

번지가 지혜를 물었을 때 공자께서

“백성들이 의로움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그를 멀리한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하고,

인에 대해 물었을 때

“어려움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로 한다면 어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樊遲問知 子曰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問仁曰 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

● 시 쓰고 노래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경의 시 삼백 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각에 사함이 없다고 하였다.”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 인생의 절반쯤에 인생 후반을 계획하라

안연과 자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을 때, 공자께서 “너희들의 뜻을 각자 말해 보거라”라고 하셨다. 자로가 말했다. “수레와 말과 옷과 가벼운 갓옷을 친구들과 함께 쓰다가 다 낡아져도 유감이 없습니다.” 안연이 말했다.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수고로운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자 합니다.” 자로가 말했다.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친구들은 신의를 지키게 하고, 젊은이들은 품어주고 싶다.”

● 오십부터는 인자의 삶이 좋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자는 동적이고, 인자는 정적이다. 지자는 즐겁게 살고, 인자는 오래 산다.”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 잘난 이도 못난 이도 모두 스승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자에게선 선함을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나를 고치면 된다.”

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 인생 후반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경공이 말했다. “좋은 말입니다. 진실로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아들이 아들답지 않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4강.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필요한 것 성숙

●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

자공이 물었다.

“평생토록 실천한 만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라는 말이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 어떤 조건에서도 변화를 끌어내는 사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子曰 君子不器

●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어라

“군자는 아홉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영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정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길 때는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해야 한다.”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법

당체꽃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네!

어찌 그대를 생각하지 않겠냐마는 집이 멀리 있구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 어찌 멀게 있겠는가?”

唐棣之華 偏其反而 豈不爾思 室是遠而 子曰 未之思也 夫何遠之有

●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는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열 집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나만큼의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있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

● 밀려온 삶에서 밀어 가는 삶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답답해하지 않으면 일깨워 주지 않았고, 표현하려 애쓰지 않으면 밝혀 주지 않았다. 하나를 가르쳐 주었을 때 스스로 세 가지를 알아 내지 않으면 반복해 가르치지 않았다.”

子曰 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不以三隅反 則不復也

●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책할 줄 아는 사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끝났구나! 나는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발견해서 안으로 자책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子曰 已矣乎 吾未見能見其過而內自訟者也

● 꾸준하기 위한 포기가 차별을 만든다

공자께서 안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애석하구나! 나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지만 멈추는 것은 보지 못했다.”

子謂顏淵曰 惜乎 吾見其進也 未見其止也

- 인생은 머리 좋은 사람만 유리한 게 아니라 꾸준한 사람도 유리합니다.(일만 시간의 법칙)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 알고 좋아하고 즐기기까지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子曰 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樂之者

- 양자역학 이론으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 교수는 성공적인 과학자로 살아온 원동력이 천재성이나 높은 목표 의식보다 ‘가슴 뛰는 삶’에 있었다고 합니다.

● 혼자만의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두루 대하며 편을 가르지 않지만, 소인은 편을 가르며 두루 대하지 못한다.”

子曰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5강. 논어는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 용기 -

● 제발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지 마라

염구가 “스승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라고 하자 공자께서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중도에 그만두는데, 지금 너는 선을 긋고 있구나”라고 하셨다.

冉求曰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 子曰 力不足者中道而廢 今女畫

- 세상의 모든 일엔 양면이 있습니다. 좋아 보여도 모두 좋은 건 아니며, 나빠 보여도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 희망은 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은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됩니다.
- 쉬운 일은 없습니다. 힘들지만 배우고 극복해 가며 이뤄 내는 삶이 가치 있고 재미있습니다.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계로가 귀신 섬기는 일을 물었을 때

공자께서 “아직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셨습니다.

계로가 다시 묻기를 “감히 죽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라고 하여

공자께서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曰 敢問死 曰 未知生 焉知死

●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공부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문은 마치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배움에 임해야 하며, 배운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듯 배움에 임해야 한다.”

子曰 學如不及 猶恐失之

- 切磋琢磨 : 절차-탁마

옥·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이나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 切 끊을 절; 끊다, 갈다, 문지르다, 바로잡다, 고치다

- 磋 갈 차;갈다

- 琢 쥘 탁; 쪼다, 옥을 다듬다, 덕이나 기량을 닦다, 꾸미다, 선택하다

- 磨 갈 마;갈다, 숫돌에 갈다, 문지르다

●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익히는 것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 세상에 반복, 습관,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딱 한 단계만 더 멀리 보고 생각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子曰 人無遠慮 必有近憂

-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 찰스 디킨스

- 목표와 꿈과 비전을 지니고 살아야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일상의 근심과 걱정이 바로 사라지진 않지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이면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 불편한 하루하루가 편안한 오늘을 만든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

子曰 君子上達 小人下達

-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쉽게 얻어진 것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세상에 쉽게 이뤄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 사소한 그 어떤 것도 타인과 나누는 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 해가 낮을 때 젖은 뉘집을 말려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상급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곤경에 처해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며, 곤경에 처해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급이 된다.”

子曰 生而知之者上也 學而知之者次也
困而學之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없이 배우면 얻는 게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된다.”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 돌아보고 계획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배들이 두렵나니 어떻게 장래의 그들이 오늘날의 우리만 못할 줄로 아는가. 그러나 사오십 살이 되어도 명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크게 두려워할 바는 없

다.”

子曰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十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

●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방전된 배터리다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관하여 물었는데 자로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나에 대하여 분발하면 밥 먹기를 잊고, 즐거움에 걱정을 잊으며, 늙음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葉公問孔子於子路 子路不對,

子曰 余奚不曰 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 아무리 기다려도 그 좋은 환경과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만들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